



KIA 가는 곳엔 구름관중
지난달 31일 LG와의 '신바람 맞대결'이 펼쳐진 잠실구장에 많은 KIA팬들이 찾아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다. 앞선 30일 시즌 첫 LG전 첫 만원사례를 기록했던 잠실구장에는 주말 3연전을 보기 위한 KIA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 허정무호 48도 폭염과의 싸움 이현주 생애 첫 우승

## 태극전사 UAE 원정... 예상 밖 무더위에 낮 훈련 엄두 못내

"낮 훈련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48도까지 올라갔어요."
사흘전 아랍에미리트(UAE)에 들어왔던 정해성 축구 대표팀 수석코치가 지난달 30일 밤(이하 한국시간) UAE 두바이 공항에 도착한 허정무 감독을 현지에서 기다리다 우연히 만난 국내 취재진에게 건넨 말이다.
정 코치의 말대로 허정무호가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허정무호 코칭스태프가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6차전 UAE와 원정 경기(7일 오전 1시15분)를 앞두고 예상 밖의 무더위에 고민하고 있다.

까지 내낮은 물론 오전 훈련도 포기한 채 현지시간으로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두바이 알와슬 클럽 훈련구장에서 하루 한 차례 씩만 훈련을 벌이기로 했다.
대표팀 임영진(경희의료원 교수) 주치의도 이 때문에 두바이 숙소 도착 직후 태극전사들에게 이 3가지는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첫째는 잠깐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라는 것. 숙면을 취해야 피로도 빨리 가시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는 것이다. 다만 숙웃만을 입고 숙면을 취하는 게 더 낫고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복용해서라도 충분히 잠을 자도록 주문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온음료나 물도 한국에서 머물

때보다 2배 정도 마시라고 했다. 대표팀은 선수들의 탈진을 우려해 소금까지 준비,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기에 걸릴 것을 막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숙소 내 설치된 에어컨을 꺼 놓고 실내 온도를 25도로 맞춰달라고 했다.
임 주치의는 "원정 경기를 나왔을 때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승리를 좌우하기도 한다"면서 "몸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KLPGA 서경오픈 10언더

이현주(21·동아회원권·사진)가 한국어자 프로골프(KLPGA)에서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따돌리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현주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 레이 크사이드 골프장(파72·6천619야드)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서울경제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10언더파 206타를 쳐 우승 경쟁을 펼쳤던 강호들을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지켰다. 상금은 6천만원.
문수영(25·엘르골프)이 4타를 줄이며 추격했지만 8언더파 208타로 2위에 올랐고 2주 연속 우승을 노렸던 유소연(19·하이마트)은 전반에 잃어버렸던 타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6언더파 210타로 3위에 그쳤다.
2008년부터 정규 투어에 뛰어난 이현주는 같은 해 9월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 대회에서 공동 5위를 차지했을 뿐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했던 선수.
지난 주 끝난 두산메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4강에 오르며 상승세를 탄 이현주는 이번 대회 마지막날 단독 1위로 경기에 나선 부담을 이겨내고 돌풍의 주역이 됐다.
이현주는 "초반에 버디가 안 나와 답답했지만 후반에 전장이 긴 홀들이 많아 차분하게 기다렸다"며 "마지막 홀 두번째 샷을 칠 때까지 해도 다른 선수들의 스코어를 몰랐는데 우승하고나니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며 기뻐했다. 안선주(22·하이마



트)는 8번홀(파4)에서 칩인 버디를 성공시켜 한 때 이현주와 공동 선두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이후 3타를 잃어버려 김현지(21·LIG)와 함께 공동 4위(5언더파 211타)에 머물렀다.
작년 대회 우승자 김하늘(21·코오롱)은 공동 51위(7오버파 223타), 삼김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서희경(23·하이마트)은 공동 40위(5오버파 221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박지성 "방출설 들은 바 없다"

"재계약에 대해 들은 바는 없지만 맨체스터에는 당연히 남고 싶다."
'산소 텀크'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08-2009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끝난 뒤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다음은 박지성과 일문일답.
-올 시즌을 평가해달라.
▲ 가장 만족할만한 시즌이었다.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소화해냈다. 그래도 많은 경기 출전하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나는 얘기를 했다.
▲ 없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두 차례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지 않나.
▲ 내가 넣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상대) 수비수가 잘했기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다.
- 재계약과 관련해 팀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떤가.
/연합뉴스

## 함평다이내스티CC 회원의 날

### 친목·화합 다지며 "굿샷"



함평다이내스티CC는 지난달 31일 회원의 날 친선골프대회 및 클럽챔피언 선발대회를 열고 회원간 친목과 화합 장을 마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계절 양산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 CC가 개장 4주년을 맞이하여 회원의 날 친선골프대회 및 클럽챔피언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예선을 거쳐 29, 30일 본선 2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진 제4회 클럽챔피언 선발대회에서 정성훈 회원이 3라운드 합계 234타를 기록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로써 정성훈 회원은 지난 2007년부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문수영은 초대 우승자인 문명하 회원이 차지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27홀 3개 코스에서 신페리옌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 회원친선 골프대회에서는 60개팀 240명의 회원이 참석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 임페리얼 코스에서는 69.2타를 기록한 김오범 회원이, 마제스티 코스에서는 최우원 회원(71.2타) 그리고 펠리스 코스에서는 이윤태 회원(70.2타)이 각각 우승했다.
또한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에서 수상한 2008년도 함평다이내스티 굿메너 회원은 김진우 회원이 선정되어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장 굿메너 표창을 받았다.
이날 회원의 날 개최식 및 시상식은 개그맨 이창명씨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석형 함평군수 및 광주일보사 유제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함평다이내스티CC는 이날 행사를 위해 회원들이 운동 중 갈증을 달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제공했고, 대회가 끝난 후에는 클럽하우스 1층 테라스와 2층 단체실에서 뷔페식과 생맥주를 곁들인 만찬을 열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